

HI Economy

中 8월 생산자물가 반등이 반가운 이유

■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8월 생산자물가

8월 중국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 6.3%를 기록하면서 전월치(5.5%)는 물론 시장 예상치 5.7%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8월 중국 생산자물가의 반등은 광업과 원자재 부문이 이끌었다. 8월 광업부문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 18.2%로 7월 15.8%에 비해 2.4%p 상승하였고 원자재 부문 역시 11%로 7월(9.3%)에 비해 1.7%p 상승하였다.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유가 상승폭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지만 각종 금속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8월 생산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 8월 중국 생산자물가 반등이 반가운 이유

당사는 지난 8월 28일자 보고서(글로벌 경기, 물가에서 해답을 찾자)에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 흐름과 관련하여 중국 생산자물가 추이를 주목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생산자물가가 글로벌 실물경기, 특히 산업생산과 수출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8월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점은 글로벌 경기사이클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8월 중국 생산자물가 반등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유가 상승폭과의 차별화이다. 그 동안 중국 생산자물가와 유가상승률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실상 유가 흐름이 중국 생산자물가를 좌지우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8월 중국 생산자물가는 유가 흐름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물론 금속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제조업 물가 등도 동반 상승하면서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폭을 확대시킴 점은 고무적이다. 중국내 구조조정과 더불어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이 중국 제조업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중국 경기의 추가 개선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한편으로 기업들의 제품가격 결정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마진, 즉 이익 개선과도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이익은 금년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의 동반 확장과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은 향후 중국 실물경기의 추가 개선 압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Chief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Econo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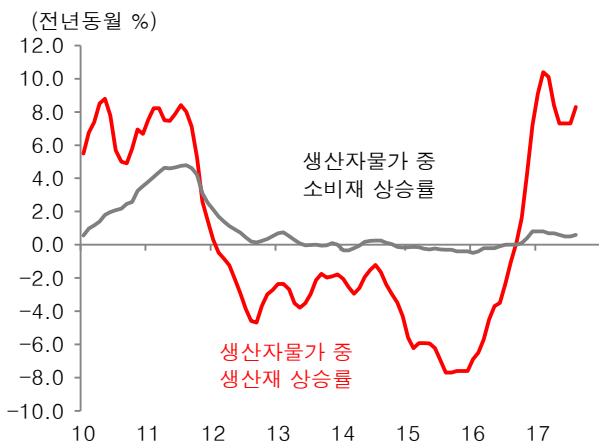
염지윤

(2122-9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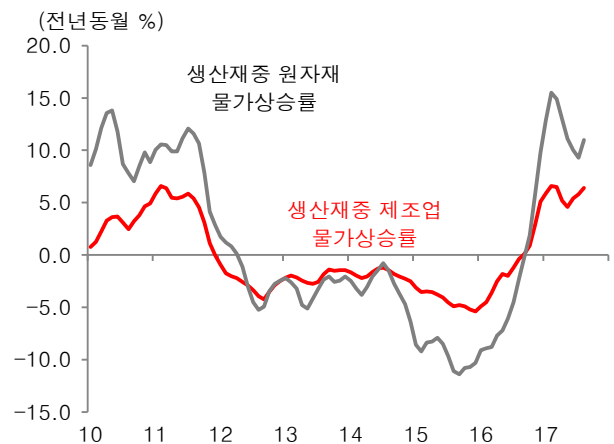
jyeom@hi-ib.com

요약하면 8월 중국 생산자물가의 반등은 글로벌 전체의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물 경기의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에서 반가운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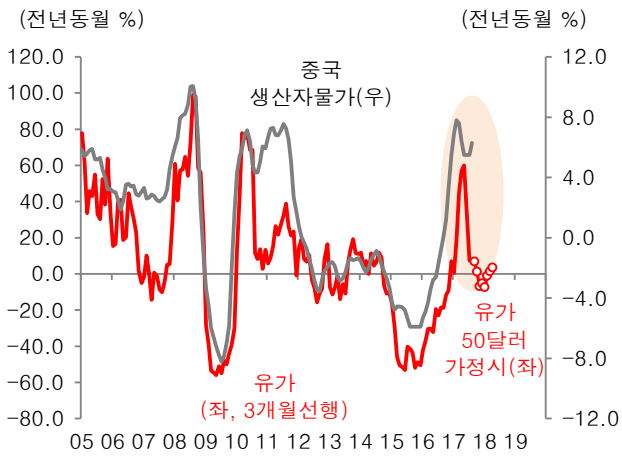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은 생산재 부분이 주도하고 있음



<그림 2> 생산재물가 상승의 상당부분은 원자재부문이 이끌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 물가도 상승하고 있음은 고무적임



<그림 3> 유가 흐름과 차별화되고 있는 중국 생산자물가



<그림 4>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폭 확대는 중국 기업이익 흐름이 양호한 추세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표 1> 중국 생산자물가 세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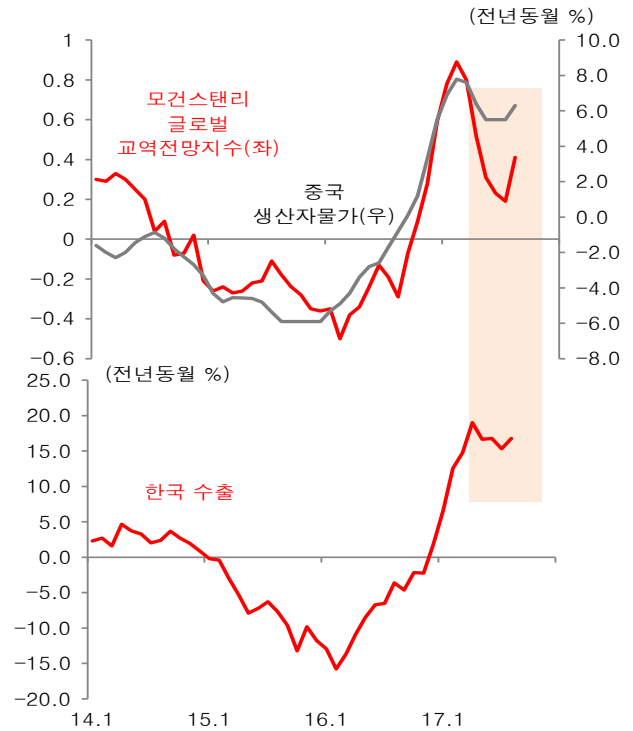
	14년 12월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7월	17년 8월
생산자물가	-3.3	-5.9	5.5	5.5	6.3
경공업	-0.7	-1.3	-	-	-
중공업	-4.3	-7.7	-	-	-
생산재 (Producer Goods)	-4.3	-7.6	7.2	7.3	8.3
광업	-13.2	-19.7	21.1	15.8	18.2
원자재	-6.4	-10.3	9.8	9.3	11.0
제조업	-2.5	-5.4	5.1	5.8	6.4
소비재 (Consumer Goods)	-0.2	-0.4	0.8	0.5	0.6
식료품	-0.3	-0.1	1.3	0.4	0.7
의류	0.6	0.7	1.3	1.2	1.4
잡제품	0.0	-0.9	1.3	0.6	0.8
내구재	-0.6	-1.1	-0.8	0.0	0.0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그림 5> 중국 생산자물가는 글로벌 실물경기의 바로미터 역할



<그림 6> 중국 생산자물가와 글로벌 교역전망지수의 동반 반등은 국내 수출경기에 긍정적 시그널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상현, 엄지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